



“문재인 정권 언론탄압 종단을”

“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KBS,MBC가 정치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금 들고 일어섰다. 지난 12일 낮 KBS 동문 계단 앞에서와 MBC(상암동) 정문에서는 'KBS,MBC를 사랑하는 국민연합'이 두 번째 언론장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북민 99.6% “북한 종교 활동 자유롭게 할 수 없다”

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7 북한종교자유백서’ 발간

오픈도어선교회와 공개했던 세계 국가 가운데 기독교 박해 순위 1위인 '북한'.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최근 발간한 '2017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살펴봐도 그 이유는 충분히 잘 알 수 있었다.

NKDB는 북한 종교자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의 북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2007년 이후 입국자로 한정해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 전체 12,476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을 입국한 시점에 조사를 했고 그 내용을 백서에 담았다. 더불어 'NKDB 통합인권 DB'가 보유하고 있는 68,940건의 사건과 40,932명의 인물 중 북한 종교자유 침해에 대한 사건(1,304건)/인물(1,109명) 분석 내용을 담았다.

그 결과,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항에 응답한 11,805명 중 11,762명(99.6%)이 북한에

서는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또 “평양이 아닌 지방에 당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가정예배 처소가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응답한 11,967명 중 11,812명(98.7%)이 그런 장소는 없다고 응답했으며, 있다고 응답한 155명(1.3%)의 경우도 가정예배 처소가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을 뿐 실제 목격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 북한에서 종교 활동 시 처벌받게 되는 수준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낮은 처벌 수준인 노동단련형은 전체 응답자 11,406명 중 320명(2.8%)에 불과하고, 교화소(한국의 교도소)형은 1,292명(11.3%)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북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의미하는 정치범수용소형은 5,809명(50.9%)이 응답, 북한에서 종교 활동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비밀종교 참가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 중 1.3%에 해당

되는 151명의 응답자가 북한에서 종교 활동에 몰래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151명의 응답자 중 145명은 2001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었다. 이에 NKDB는 “2001년 이후 북한 지역에서 비밀 종교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더불어 북한생활 당시 성경을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4.2%(504명)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2000년 이전 탈북 한 북한이탈주민 중 성경을 본 경험자는 단 12명에 불과하였지만, 2000년 이후 탈북을 한 북한이탈주민 중 성경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492명에 달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NKDB는 “이와 같이 2000년 이전 북한에서 성경을 본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최근에는 북한에 성경 유입이 증가하면서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2017년 7월 기준, 응답자 중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수가 1명으로 전년 대비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2017년 이후 탈북한 응답자 중 성경을 본 경험자의 응답 비율은 2018년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서 확인할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자신의 종교를 묻는 질문에 총 11,765명 응답자중 기독교를 믿는다는 응답자는 4,907명(41.7%), 불교 1,188명(10.1%), 천주교 1,122명(9.5%)순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292명(28.0%), 미상인 1,219명(10.4%)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현재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종교 활동을 시작한 시점을 조사한 결과, 국정원(조사시설)에서부터 종교 활동을 시작한 응답자가 3,002명(33.9%), 중국에서부터 2,713명(30.6%), 하나원에서부터 2,571명(29.0%), 중국 외제 3국에서부터 409명(4.6%), 북한에서부터 168명(1.9%)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NKDB는 백서를 통해 'NKDB 통합 인권 DB'에 등록된 1,304건의 북한 종교박해 사례 중 관계자의 인적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중요 사건들을 소개했으며, “북한 내에서 종교생활을 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강제송환 후 조사과정에서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종형량이 내려지기 전까지 다른 죄인에 비해 조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구체적인 증언들도 상세하게 기록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홍은혜 기자

UN안보리 “北인권 문제 4년 연속 정식 안전 대책”

北 유엔대표부, 안보리 논의 반박 “인권문제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올해로 4년 연속 북한 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미국,영국, 프랑스, 스웨덴,이탈리아,우루과이 등의 요구로 11일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당국에 의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 탄압을 우려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미로슬라브 엔차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의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엔차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보는 북한 인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지에 관한 최신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이나 납치 문제 해결에서도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북한 정권을 대신해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국제법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이날 화상발표를 통해 긴장된 안보 상황이 2천 500만 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1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4년 연속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한 데 대해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 유엔 북한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이날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에 대해 “핵 보유국 지위에 오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에서 패배한 적대세력들의 절망적 행동”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북측은 또 “미국이나 적대세력이 안보리에서 인권논의를 통해 공화국을 공갈할 생각이라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안보리 회의 이후 미국과 일본, 한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랄리아, 프랑스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병행 행사도 열렸다. 탈북 여성 지현아 씨가 증언자로 나서 탈북 여성 강제북송에 관해 증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과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에 관한 책 '숨겨진 수용소'의 저자 데이비드 호크 씨가 참석자들에게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해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서울평양뉴스 제공

강경화 “北에 하나된 국제사회 목소리 전달하기 위한 효율적 소통 채널 모색”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일 “고립되고 격리된 북한에 하나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효율적 소통 채널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연 산하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단절된 남북 사이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군 당국간 핫라인 복원이 절실하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구체적인 과제를 위한 접촉에서 시작해, 보다 의미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내년 2, 3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면 좋은 계기가 되겠지만, 북한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평화의 제전이자 올림픽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우리 정부는 만반의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폴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은 특별연설에서 “북한은 물론 전 세계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평화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북한 역시 어떤 식으로든 핵을 사용하는 것은 곧 자살 행위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특별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진전 및 30~50개의 핵탄두 보유 추정에 따라 한반도의 분쟁 ‘가능성’이 20~25%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로 마중의 북한에 대한 비공식적 핵보유국 인정과 북한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grand bargain)’ 해법을 최종 목표로 삼는 외교적 경로가 있다고 전망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사회

로 진행된‘국제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제목의 패널 토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뤄졌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25%의 한반도 분쟁 가능성 관련해 “북한이 미국의 북핵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고, 25%라는 수치는 핵 기술, 대외 정책 등의 지표를 감안할 때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중국 측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일방적 군사행동을 단행할 개연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피커링 전 미국 국무차관도 불확실성에 따른 ‘오판’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외교적 접근이 낙관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에만 머물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신뢰 구축’에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북핵 협상의 주제와 관련해, 토마스 피커링 전 미국 국무차관은 “일괄타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신뢰가 필요하므로, 단계별·점진적 프로세스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다만 ICBM 개발 등을 동결하는 초기 협상이 이미 위협에 노출돼 있는 한국일본의 안보적 이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동맹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북한이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상대인 만큼 초기 협상과정에서 핵-미사일 동결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협상의 진행방식과 관련해, 케빈 러드 전 총리는 “남북 및 북-미 양자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추후 이들 대화가 6자회담 틀 안으로 이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드 전 총리 역시 “북한의 합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압박하려면 관계국 모두가 참여하는 6자회담 플랫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핵무기는 단순히 ‘또 다른 형태의 무기’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지자 외교안보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 ‘북한 핵과 미사일 수렁에서의 탈피 방안’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종국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포함하는 정치적 협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재 역시 명확한 목표를 갖고 실행돼야만 당초 목적인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 의원은 덧붙였다.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도

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결정하고, 유엔의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지키는 차원에서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하고, 진정한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한국 및 다른 관련국들과 상호 이익이 되는 폭넓은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창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 주최로 열린 ‘핵 없는 한반도: 문재인 정부의 전략과 실행방안’ 국제문제회의의 오찬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모든 관계 당사자들과의 협력 하에 평화롭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우리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외교의 공간을 넓혀가고 현재의 교착상태를 깰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평양뉴스 제공

언약을 맺으신 의미 (출24:1-11)

본장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수여하심으로 수여자인 하나님과 수취자인 백성과의 사이에서 상호 계약을 맺는 장엄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율법의 핵심을 이루는 장입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관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고 거절 하였을 때 "네가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3:1-12)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어김없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 하셔서 언약을 세워 주시려는 것입니다. (1-2)

언약을 주시는데 산 밑에는 백성들이 있고, 산 중턱에는 아론과 두 아들과 70인인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정상에는 모세만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는 25장에서 계시하실 성막의 모형을 보여 주신 것으로 이해하며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마11:28에 너희는 내게로 오라고 하였고 요15:1-6절에는 '내안에 거하라' 등 무조건 초청 하시는 부드러운 관계를 보여 주지만 율법은 철저한 법적인 의식에 의하여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수여하는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 오지 말지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산양이 미숙하고 경건치 못한 사람일 수 록 여호와께로 부터 멀리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대문화센터 대표대림
중국교도교회 이선규 목사

1. 율법 체결 자격

우리는 모세와의 율법 수여에 있어서 계약체결 자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 일에 성실한 일군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빛이란 성실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우리를 신용하지 않습니다. 뭐가 되었다고 할 때 조심해야 하고 무엇을 이루었을 때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39: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 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3단계의 위치를 설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등급으로 취급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감당할만한 역할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서를 낭독하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와 말씀을 우리가 준행 하리이다. (7)하고 서약 한 후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합니다.

이렇게 언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는 항상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절대 의로 우시고 절대 거룩하시고 절대 완전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들은 그저 '아멘'하고 순종할 의무가 있을 뿐 논쟁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 할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 때 마다 순종을 서약 했습니다.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순종하고 언제나 순종하고 무슨 일이나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이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2. 언약을 맺으시는 의식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다짐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피를 뿌리면서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 피니라."피의 성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피는 예수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본질적인 피의 언약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언약의 피를 (6) 반은 제단에 뿌리고 (8)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렇게 피를 뿌린 것은 백성들의 죄를 씻고 정결케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이 피의 성질을 말씀 하고 있습니다.

이 피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며 생명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기 언약 체결의 핵심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8)'하신 '피'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 합니다. 왜 언약 체결에 피 흘림이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하기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8:18-22)고 답변합니다. 여기에서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 해 줍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피를 믿고 인정하고 있는 한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

며 그 언약에 따르는 약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 말씀의 선포 (24:4)

율법에 의한 죄에 대한 처벌의 방법은 단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생명이 죽든지 아니면 대속의 희생 제물을 바치든지 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희생의 피는 필수 요소이었습니다. (레17:11)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 시 희생된 짐승의 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피였지만 갈보리 언덕에서 희생된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의 보혈은 전 인류를 위한 언약의 피이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와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 합니다.

히브리서4:12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하니 말씀의 가치성을 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2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의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1) 말씀의 영구성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 점 일 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 하고 다 이루어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불변의 말씀입니다. 뱀전:24-25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쪼개는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 이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 하리라(마24:35)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새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속담에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인심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시대도 변합니다. 학설도 변하고 주장도, 원리도, 과학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에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성경은 삶의 뜻대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윤리와 도덕의 가치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피는 제단을 쌓은 후에 뿌려 졌습니다. 모세가 산 아래 제단을 쌓고 (4절)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존귀한 자를 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구출을 위하여 선택 받은 자이고 아론은 모세를 도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 하도록 한 자이며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대를 잇도록 한자이며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게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인물들에게 사명을 맡기되 보편적인 상황 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선택 이었습니다.

(2)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적으로 순종할 때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체험한 이스라엘이 영광을 본 것은 천축을 뚫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한 것으로 표현 했습니다.

만약 인류 사회에서 쓰는 언어의 표현 중에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있었다면 모세는 그 표현을 본문에 기록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에 배푼 잔치에 참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자만이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앞서 말한 모든 것을 이룬다면 하나님 앞에서 배푼어주시는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이 영광의 주인공 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편집장 장세규	교계편집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1개월 15,000원	광고 및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구독문의 070-4352-2480 우리은행 1005-301-884992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My KIDS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2. 모바일 웹 mykids.wv.or.kr로 접속해주세요.

3. 30초만 투자하면

- 월드비전 Family Care와 함께 하루 100개 영구 카드를 할애할 수 있습니다.
- 이름과 전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름과 전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월 1회 이름과 전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4. 후원금을 통한 혜택

- 월 10만원 후원금은 지역별 100만원을 통해 아동이 영양, 보건, 교육, 교육 및 의료에 혜택을 받습니다.
- 이름후원은 한 아이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후원입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사랑의 능력으로 책임지십시오(요일3:13~24)

[요한 일서 3:13-24]

13.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머물러 있느니라

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0.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 사랑하는 자들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 전에 13절의 말씀이 참 힘이 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 보면 처

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맥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처음부터 말씀하셨지만,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보려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며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잘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멸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 제자들이 생각하던 복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21절을 보세요.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2.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이를 위하여’란,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사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마땅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땅히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랑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낭만’만은 아닌 것 같

습니다.

오늘 요한이 말씀하는 14~16절의 말씀을 보세요.

14.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머물러 있느니라

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이라는 말과 더불어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미움이라는 말과 더불어 ‘살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 다 죽음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나오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해서 ‘살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는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대거나, 자신들의 이해의 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광하는 일이나, 회피하는 일들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모르지만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웃집 사람이 술을 빌리러 왔다. 이 사람은 술을 빌리러 온 이웃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전에 자네에게 술을 빌리러 갔을 때, 자네가 거절하지 않았나. 나도 술을 빌려주지 않겠네!” 이것은 복수다.

어떤 사람에게 이웃집 사람이 술을 빌리러 왔다. 이 사람은 술을 빌리러 온 이웃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전에 자네에게 술을 빌리러 갔을 때, 자네가 거절하지 않았나. 그러나 나는 자네에게 술을 빌려주겠네!” 이것은 미움이다. 탈무드 얘기는 여기까지다.

이 얘기에는 여운처럼 남아 있는 무엇

이 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이렇다. 술을 빌리러 온 이웃 사람에게 복수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여기 있네. 빌려 가게나.” 이것이 사랑이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빌려주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므로 생명으로 들어가고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사랑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14절).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며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속’을 위해 수고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바탕 위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

본문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구원’을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알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엄격하게 구별되는 데, 하나는 자의적인 사랑으로 ‘자기애’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다른 또 하나의 사랑은 상대방을 사랑하므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연초에 [Passengers]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단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로 무척 지루할 것 같은 내용인데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을 동행시킨 채 다른 행성으로 120년 여행을 하는

우주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비행 중 다른 행성과의 충돌로 사고가 나고, 승객 중 한 사람만이 90년 먼저 깨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동면을 하고 있고, 90년 후이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고로 깨어난 그 사람이 홀로 우주선에서 늙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엔지니어가 직업인 주인공 짐 프레스턴은 다시 잠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봅니다. 방법이 없자 이번에는 우주선에 있는 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놓고 우주선에 있는 온갖 좋은 음식을 먹어 보지만 고작 1년이 지나지 견딜 수 없는 고독감이 밀려옵니다. 결국,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동면에 있는 승객 중에 오로라라는 여성에 대해 알게 됩니다. 우주선에 타면서 그녀가 남긴 자료와 영상을 통해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의 이상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평생 외롭게 죽어갈 처지에서 자신의 이상형과 함께 살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자신이 동면하는 것은 불가능해도 자신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깨어나게 할 수는 있죠.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일인지 알지 못, 자신이 오로라를 깨웠다는 사실은 비밀에 부친 채 사고를 가장해 그녀를 동면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그녀 역시 90년을 먼저 깨어났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만, 함께 깨어난 짐의 헌신적 도움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둘 뿐인 우주선이지만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려는 순간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외로움 때문에 자신을 동면에서 깨웠다는 사실에 극도로 증오심을 느끼게 됩니다. 120년 후의 자신의 꿈을 산산 조각낸 남자를 용서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영화는 여기서부터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본질에 대하여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등장한 한 승무원 역시 우주선의 결함으로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이 우주선에 탄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불행하게도 우주선을 고치지 못한 채 깨어난 승무원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승무원은 오로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짐이 당신을 깨운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서로 잘 도우십시오.”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5천 명의 승객이 동면한 상태에서 이유도 모른 채 다 죽을 수 있는 사고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짐이 오로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을 위해 한 여인을 깨워 인생을 망쳐버렸던 그 일에 대하여 자책합니다. 이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돌려주고 자신은 가까이 죽음을 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던져 우주선을 고치고 죽으려 했던 짐을 오로라가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둘 중 한 사람은 다시 동면에 들어갈 방법을 알게 되고, 짐은 가까이 오로라에게 동면을 권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다시 외로운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그는 다시 외롭게 죽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이 깨어났을 때, 우주선에는 그저 두 사람이 평화롭게 살다 죽었던 흔적만이 보일 뿐입니다. 아마도 오로라는 혼자 사는 길을 택하지 않고,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떠올랐던 내용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므로 하는 사랑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끄는 이기적인 사랑이라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놓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16절)

때때로 영화 한 편이 복음의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죽이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결국, ‘어떤 사랑’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이 무엇이었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혹은 마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본문 17-19절입니다.

17.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평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단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오늘 본문 가운데 21~2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두 구절이 23절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같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1. 사랑하는 자들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가 참 힘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사랑하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 다. 우리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응답이 없는 경우 말입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는 마음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할 일’이 없는지 말입니다. 마치 파이프에 물을 부어도 통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가운데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원’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물 초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강해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참 그렇

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계는 기도를 막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은 아내를 이해하라는 말이 아닐까요?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아내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아마도 ‘사랑’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가정을 지키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아내와 남편도 늘 사랑하고 살기는 힘들니,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 함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책망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학교에 다니며 한참 민중 신학과 해방신학을 공부할 때입니다. 그때는 부도덕한 기업주들에 대하여, 부도덕한 크리스천들에 대하여 비판을 많이 했던 때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런 예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장로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신실하게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 그 시간 자신의 사업장에서는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참 힘든 질문이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22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한 것을 하나님께 받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기 때 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받기를 좋아하지만, 그것이 정말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것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올바른 것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A. W. 토저의 책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 기도를 안내해주는 길잡이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인식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그분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도회 때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보라. 그분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수록 내가 그분께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를 더욱 알게 되고, 또한 그분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된다. 그분과 나 사이에 기대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 통행이다.”

맞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말입니다.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과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하라는 이야기, 참사랑이란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정의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사랑’을 실체와 그림자의 비유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동그란 공을 생각해 봅시다. 공은 어느 위치에 있어도 동그랍니다. 그런데 공의 그림자는 빛이 비치는 방향과 공의 그림자가 생기는 지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동그랄게도 되고, 타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빛을 두 개나 세 개를 비춰주면 그림자는 꽃처럼 되기도 하고 춤추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그림자가 공이라는 실체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그림자의 모양은 그 모양이 어떠한지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실체의 왜곡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에서 행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계명’이고,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이루는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하겠죠.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와 같은 사랑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거룩과 성화]에 보면 사랑의 명령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바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왔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위해 죽으라고 부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라고 부탁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롬12:1)고 말한다.”

서로 사랑한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사랑은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을 이기려고 한다면, 사랑이 아닌, ‘정복’과 ‘조정’하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성숙한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어떤 젊은이가 예게 해에 떠 있는 작은 외딴 섬에 홀로 사는 수도사를 찾아갔다.

높은 바위 위에 있는 작은 방에서 홀로 기도하며 여생을 보내는 수도사에게 젊은이가 물었다.

“요즘도 악마와 씨름하시는지요?”

수도사가 말했다.

“나도 늙고, 내 안의 악마도 늙어서 더 이상 씨름하지 않는다요. 대신에 요즘은 하나님과 씨름하지요.”

젊은이가 물었다.

“하나님과 씨름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길 바라나요?”

수도승이 말했다.

“내가 하나님께 지게 되길 기도한다요.”

(출처: 예화공작소&희망충전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을 느끼는 것이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본문 23절에서는 ‘계명’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은 사랑을 ‘남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 ‘책임’입니다. 책임 없는 사랑은 단순한 자기감정의 만족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만 책임지고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24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그 사랑이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진짜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설교를 듣는 직장인들에는 꿈처럼 들리는 이야기일지 모르니다. 2016년 weekly biz에 인터넷 기업으로 시가 총액이 270억 달러에 육박하는

‘넷플릭스 기업문화’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 회사는 성장할 때 ‘자유’를 늘렸다고 합니다. 휴가 정책을 없애고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 휴가를 써도 된다는 것이죠. 단지 책임지고 훌륭하게 성과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지출, 출장비, 선물에 관한 규율도 없었습니다. 단지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아껴 쓰라’는 원칙은 남겨둔 채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애플라는 회사 역시 자율 출퇴근제, 재택근무를 도입했지만, 출근 안 하고 부업 하는 직원들이 생겨나자 머리스 메이어 CEO 때 이르러 재택근무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무한한 자유를 주는 넷플릭스라는 회사를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지우는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요?(넷플릭스는 평균적 성과를 내는 직원 2명보다,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우수한 직원 1명을 고용하면 회사 입장에서 비용을 절약한다고 본다. 그래서 뛰어난고 우수한 직원을 찾는 데 노력한다.) 중요한 것은 그 회사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찾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이야기하는 해가 왜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 사랑이 교회와 신앙을 흔락하게 만드는가?

사실은 나에게 적용되는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고,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은혜와 사랑을 간과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부러워하기 전에 누군가 져야 하는 책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침을 여는 기도] 곁에 계시는 하나님까지도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 주옵소서, 저의 삶이 복



연요한 목사

음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데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 다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시는 복음을 믿습니다.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은혜로 받습니다. 삶을 저 자신의 소유로 여기겠습니다. 은혜와 평화가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옵소서.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어 더 이상 부활함이 없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삶 속에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진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이 가난하고 슬픔 속에 있습니다. 저의 영혼이 갈급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어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복을 주옵소서. 좋은 삶의 조건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데 익숙하여서 주신 복의 의미를 많이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

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꽃동산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새소리에도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밤하늘 반짝이는 별들도 세지 않았고 천구들도 켜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까지 잊고 있었습니 다.

절대적인 것에 영혼의 무게를 두게 하옵소서. 상대적인 삶의 조건에 매달리지 않게 하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

여주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을 때 저는 기뻐하고 즐겁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 다.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복음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복음을 복음으로 경험하고 싶습

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롬1:4)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연요한 목사는 송실대, 송의여대 교목실장과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장을 역임하였다. 최근 저서로 「사순절의 영성」, 「부활 성령강림」 등이 있다.

당사와 함께 있는 철학동화—철학하는 마이

코트는 없어졌지만, 겸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스콜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미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낡고 해쳐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급해, 낡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런, 여전히 쓸 만해.”

하찮고, 오래되고, 불쌍했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해요. 진정한 행복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마스터 이은혜

출판 이원소프스 | 그림 배려나 매달리 | 후설 이은혜 | 36쪽 | 0.000원

한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번호 02-724-7888 **미마루**